

한국-네덜란드간 스마트팜 기술교류 나서 (2024.10.29.)

경북도는 29일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orld Horti Center) 펍 반 홀스테인(Puck van Holsteijn)CEO를 비롯한 Westland주 공무원, 스마트팜 관련 기업인 등 10명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첨단 원예산업에 대한 세미나, 컨설팅 등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 간 스마트팜 관련 교류·협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방문단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보육센터 교육생, 임대팜 입주 청년농업인, 실증단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펍 반 홀스테인 CEO는 ‘네덜란드 스마트팜 스타트업을 위한 전략’ 특강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의 농업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의 ‘우리나라 스마트팜 정책 및 스마트 사업’ 특강도 이어져 양국 간 첨단농업에 대한 정책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방문단은 특별 세미나를 마치고 상주 혁신밸리의 교육온실과 실증단지,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들에게 온실 관리, 재배 기술에 대한 즉석 컨설팅도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혁신밸리 인근에 있는 도내 최대 스마트팜 기업인 (주)새봄첨단온실 농장을 찾아 네덜란드와 한국의 스마트팜 농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을 이끈 펍 반 홀스타인 세계원예센터 CEO는 “최근 한국의 스마트팜 발전 속도는 매우 놀랍다”면서 “이것은 농업혁신을 향해 농업인과 정책당국, 교육기관 등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아울러 방문단은 경북대학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11월 1일 네덜란드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양국 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에 대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도 폭넓게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는 지난해 1월 18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경북도지사, 상주시장, 세계원예센터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현재 인적교류, 기술교육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열린다

(2024.10.25.)

경북 안동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안동시의 모든 농축특산물을 모아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왔니껴 안동장터’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장터에서는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고추, 안동 산약마, 안동생강, 안동고구마, 안동꿀, 백진주쌀 등 다양한 농산물과 안동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문어, 안동학가산김치 등 전국에서 인기를 누리는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인간 생명 존중의 인문가치를 실현하는 안동시는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에 ‘고급’,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붙어도 될 만큼 고품격·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다.

안동은 예로부터 우시장이 발달해 전국적으로 한우를 사고파는 집산지로 유명했으며 1등급 이상의 육질 등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 단위를 자랑하는 주요 농산물로 전국 생산 면적 1위 안동사과, 생산량 1위 안동생강, 안동고추, 안동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안동 산약마까지 농촌 경제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다.

안동의 농산물은 “모든 품목이 대표 품목”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농업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애플, 안동한우, 안동참마돼지와 같이 안동에서 만든 품목별 브랜드는 최고급 품질 생산물에만 붙여주는 브랜드다.

이번 ‘왔니껴 안동장터’에서 신선하고 맛 좋은 안동의 농축특산물을 저렴한 직거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안동은 양반들의 풍류 문화를 책임지던 전통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살려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고향 마을에서 생산되는 청포도 와인,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주던 막걸리 등도 함께 선보여 대도시 시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옛날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마을 친구나 친척도 만나고 남사당놀이, 사물놀이 등 구경거리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에 안동시는 신명 나는 안동장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동 탈놀이 댄스단 퍼포먼스와 하회 별신굿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전놀이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안동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 하회탈 포토존도 준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가득한 ‘왔니껴 안동장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미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을 즐기고 맛난 먹거리도 양손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목포시 농업인단체 상생·화합 교류행사 (2024.10.10.)

영주시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2024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에 자매도시인 전남 목포시 농업인단체(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를 초청해 영호남 상생 교류행사를 실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회원 총 40명이 참여해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를 참관했다. 국립산림치유원과 인견공장 방문, 지역 농산물 우수성 홍보 교류식 등의 시간을 가졌다.

영주시와 목포시는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매년 상호 방문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선진농업기술정보교환을 하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자매결연도시인 목포시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지역의 대표축제인 인삼 축제도 흥겹게 즐기시고 두 도시가 상호교류행사를 통해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미시, 미국서 '문화·첨단 산업' 융합해 세계 진출 속도화 (2024.10.20.)

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이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AI 및 메타버스 산업 육상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AI·메타버스 산업의 빠른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빙 팝업스는 증강현실 기반의 몰입형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다. 클리어브룩은 2023년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 투자회사다.

또 대표단은 제25회 뉴포트비치 영화제(NBFF)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

패션 아일랜드에서 열린 영화제 오프닝 나이트 행사에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관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GAMFF)를 홍보했다.

뉴포트비치영화제(NBFF)는 1999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5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영화 팬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영화제다.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는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개최해 공모전을 통해 42개국 527편을 접수·입상작 22편을 선정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며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뉴포트비치 영화제를 통해 그 성과를 세계에 선보일 기회를 얻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영화제 참여를 통해 구미시와 글로벌 영화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구미시의 문화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과 글로벌 행사 참여를 통해 구미시의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독일 이민정책 협력 교류 (2024.10.31.)

유럽을 방문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30일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관계자들과 이민정책과 관련된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르틴 부자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 이민정책 관계관 등이 참석해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블루카드 제도’(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 제도)를 통해 과학, 기술, IT분야 전문 인력 유치와 언어교육과 법적 지원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유럽 내 최대 이민국인 독일 이민정책 모델 사례 연구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철우 지사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민정책이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의 이민정책을 통해 경북도도 앞으로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이민자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올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으며, 광역 단위로는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포항시, 다산 정약용 브랜드 교류 업무협약 체결 (2024.10.13.)

포항시는 지난 1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에서 남양주시(주광덕 시장), 강진군(강진원 군수)과 ‘다산 정약용 브랜드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유산을 기리며 세 도시가 손을 잡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산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산업콘텐츠, 다산 정약용 브랜드와 관련된 관광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약용 선생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길 18년(1801년부터 1818년까지) 동안 포항시 장기면에서 220여 일을, 강진 강진읍과 도암면에서 17년을 보낸 후 출생지인 남양주에서 여생을 보낸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이다.

특히 포항시 장기면은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로 단일 현으로는 가장 많은 유배객이 머무른 곳이다. 장기에는 다산 정약용과 우암 송시열 등 유명 학자들이 유배객으로 머물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고, 지역민들과 교류했다.

포항시는 매해 장기의 유배 문화를 문화·예술의 형태로 풀어낸 ‘포항 장기유배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강진군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하며 많은 저서를 집필한 곳으로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

이강덕 포항시장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고유문화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세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